

[TV]

TV 2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columns for channels (KBS1, KBS2, MBC, KBC/SBS, EBS) and program listings for the week of May 21st.

영진위 영화 관람료 인상 추진

기준가 7천원→8천원, 주말 최고 9천원으로 오를 듯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영화 관람료 기준가를 7천원에서 8천원으로 인상하고, 주말 황금시간대 요금을 최대 9천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수익률 개선을 위해 극장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영진위는 ▲영화 관람료 전체 요금을 평균 500원(7%) 인상하고 ▲기준의 주말 프리미엄 타임은 평일로 확대 적용해 평일 오후 2시부터 11시까지는 8천원, 조조 5천원, 그 외 시간대 7천원으로 하며 ▲주말 프리미엄 타임은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12시부터 11시까지는 9천원, 조조 5천원, 그 외 시간대 7천원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칸’ 경쟁부문 초청 김기덕 감독 ‘숨’... 잇단 호평

지난 19일 언론 시사회... 3대 영화제 석권 관심 증폭

제60회 칸 국제영화제 장편 경쟁부문에 초청된 김기덕 감독의 신작 ‘숨(Breath)’(‘사신’)이 지난 19일 오전 영화제 메인 상영관인 뤼미에르 대극장 내 바쟁극장에서 언론 시사회를 통해 선보였다.

이날 오후로 예정된 공식 시사회에 앞서 언론에 먼저 소개된 ‘숨’은 “흥미롭다” “예술적이다” “탐미주의적이다” 등의 반응을 얻었다. 베를린·베니스 영화제 감독상에 이어 칸 영화제 수상으로 세계 3대 영화제 석권을 노리는 김기덕 감독은 세계적인 거장과 함께 주목을 받고 있다.



비교해 큰 변화는 못 느꼈다"고 평했다. 영화제 취재가 처음이라는 AFP통신의 소피 마커스(Sophie Marks) 기자는 “김기덕 감독의 영화를 처음 봤는데 아름답고 흥미로웠다”면서 수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영화제가 초반이고 심사위원들의 취향을 몰라 뭐라고 말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LIVING TALK 리빙Talk, 최동철의 뉘앙스 (밤 11시)
방송 최초로 김동진 아나운서가 토크쇼의 사회자가 아닌 게스트로 '리빙토크, 최동철의 뉘'에 출연한다.

창업25년 국제보청기 본점 (동구청 남동성당사) (062) 227-9940
충장점 (금남공원앞) (062) 225-9970

케이블·위성TV 21일

Large table listing cable and satellite TV channels (YTN, MBN, KTV, MBC MOVIES, OCN, etc.) and their respective program schedules.